

시나리오 카드 커미션 영하(@____mir_acle) 님



평온한 장미

둘이서수사 팬메이드 시나리오
w by. 엔리

알고있었어 카드 2장 / 키워드 5개

▶ 시나리오 안내

알고있었어 카드 2장 / 키워드 5개

- 룰북 없는 마스터링을 금지합니다.
- 이 시나리오는 특수 시스템 [과학수사]의 " 일부 " 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플리먼트 : 과학수사]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https://mokara-exit.postype.com/post/8874490>)
- 이 시나리오의 내용은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과 단체 등은 관계 없으며,
시나리오에 나오는 범죄나 사상을 옹호, 미화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과학돌수사 시나리오 [[침묵의 총성](#)]보다 한참 이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총성을 플레이 한 여부와 상관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으나 시각에 따라 아동 학대 요소로 여겨질 부분이 있습니다.
- 시나리오 개변은 자유롭게 진행해주시되 개변 후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다만 개변시 이후 시나리오를 플레이할때 설정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GM님들 화이팅!
- 플레이타임이 룰플레이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개요

과학이 조금 더 발달된 지금 이 사회.

범죄율은 치솟고, 경찰 인력만으로는 사건을 수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능하다고 판단된 탐정들의 도움을 받는 꽤 과감한 수사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방침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첫번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로케이션 / 용어

시대

지금보다 조금 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많은 차이는 없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로 범죄 방법이 다양해지고 이에 맞춰 수사기술도 발달하여, 수사가 더 편리하며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탐정, 혹은 범행을 수사하는 직업(형사,검사 등)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죠. 꽤 많은 사람이 탐정과 본업을 겸하고 있고 탐정이 본업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활약 덕에 《탐정특별수사방침》이 발안, 시행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예정이라는 공표도 되어있는 상태지만, 아직 정확한 방침을 결정하는 단계인 듯합니다.

카페 'Rose'

요즘 인기 있는 청소년 모델 '로즈'의 이름으로 오픈한 카페입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장미 장식으로 가득한 곳으로 이벤트 장 또한 장미 장식이 가득합니다. 사건이 있던 당일은 '로즈' 본인도 와서 오픈식 겸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픈식에는 현재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미 장식'을 추천하여 선물하는 이벤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장미 장식을 도둑맞아 곤란에 빠졌습니다. 카페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로즈의 보호자로 로즈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장미장식

카페 'Rose'와 모델 '로즈'를 본따 만든 커다란 장미 장식입니다. 카페 Rose 오픈식 이벤트 추천 물품으로 SNS에 사진을 선보였을 때 무척 예쁘다고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델 본인인 로즈도 극찬한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도 있어 더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이 장식을 얻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도 적지 않을 정도였고 때문에 따로 보관 장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도둑맞았습니다.

▶ 등장인물

* 원하시는 국적의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편의상 시나리오에서는 영어이름으로 명명합니다.

[형사 : 신열빈 / 히가 이노루 / 블레드 케이스(34세, 형사)]

유능하다고 평판이 자자한 특수반 현직 형사입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해설해설 웃으며 사람을 대하지만 은근 사람 속을 긁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웃으며 사람을 빠치게 만드는 사람(...)이죠. 특수반 과장이 왜인지 위장약을g 달고산다는데... 아마 이 사람때문이 아닐까 하는 신빙성 있는 소문이 경찰들 사이에 퍼져있습니다. 시나리오 제목은 평온한 장미인데 전혀 평온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나게 하는 정도는 탁바탁일듯 하여... GM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꽤 음험한 성격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규칙을 조금 어기는 것 정도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일을 상당히 유도리있게 처리하는 덕에 해결하는 사건이 꽤 많아 유능하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격을 심각할 정도로 못하며 이 때문에 총도 소지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 + 비밀리에 《탐정특별수사방침》에 적합한 탐정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에필로그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 에필로그까지 이 점을 비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PC가 경찰 관계자인 경우, 블레드에 대해서 이름은 모르고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최근에 PC가 있는 경시청으로 전입해 왔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며, '에어리 스테인'이라는 형사와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이 캐릭터는 게스트 NPC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후 침묵의 총성을 이어갈 페어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포일러가 있기에 이유는 침묵의 총성 시나리오를 직접 확인해주세요!) 그럼에도 게스트NPC로 넣는다면 기능은 자유롭게 하나 지정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용의자1 : 나정미 / 모리바라 와타루 / 로제 플러미(15세, 모델 '로즈')]

착하고 다정한 15세 아이입니다. 청소년 모델로 현재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활발하면서도 입는 옷이 잘 어울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래 답게 인터넷 활동도 왕성하고 장미를 무척 좋아하여 예명도 '로즈'라고 지었습니다. 비록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기는 해도 모델 일 자체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 지원해주는 보호자이자 카페 매니저 안리를 무척 사랑하나 요즘 조금 소원해진 탓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벤트용 장미 장식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지 못하고 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용의자2 : 고안리 / 모리바라 카리코 / 안리 플러미(45세, 카페 매니저)]

로제의 보호자이자 'Rose'의 카페 매니저 입니다. 모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로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상냥하게 응원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번에 로즈를 모델로 하는 카페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바빠져 상호간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조금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카페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진 상태로 오픈식과 이벤트를 진행하느라 더더욱 돈 부분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벤트 물품까지 도난당해 무척 스트레스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벤트 시작 직후부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너무나 바빠 로제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 범인

나정미 / 모리바라 와타루 / 로제 플러미 (15세, 모델)

* 주의사항

로제가 장미장식을 숨긴 곳은 겉옷입니다. 겉옷에 장식처럼 매달아서 일부러 당당히 하고 다니며 눈치 못채게 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종업원이나 이벤트 방문객은 이 장식을 ‘이벤트 홍보를 위한 장식’이라고 생각했고, 카페 매니저인 안리는 이벤트 시작 직후부터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로제를 만나지 못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리와 함께 사건에 대해 조사받을 때는 겉옷을 벗고 있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때문에 로제가 출연할 때마다 겉옷에 대해 스치듯 언급하면 좋습니다. 로제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숨기려 노력은 많이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 진상

로제는 보호자인 안리와 서로 깊이 이해하는 가족 사이입니다. 안리는 로제가 하고 싶어 하는 모델 일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극 지원해주었고 그것은 큰 성공으로 이어져 새로운 사업인 카페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는 로제가 무명이었던 시절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서로 이야기 하던 것들을 이룬 것으로 로제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인 로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부 안리가 도맡아 바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부족한 자금 조달, 사업장 위치 선정, 수리공사, 홍보 이벤트... 더해서 조달한 자금마저 조금 부족해 안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거둬든 피로로 로제와 대화할 시간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로제 또한 안리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안리와 이야기하고 싶어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려가 결국 안리와 로제를 소원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런 와중 로제는 ‘Rose’ 카페를 이미지화 한... 심지어 평소부터 좋아하던 장미 모양으로 된 장식이 무척 마음에 들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식은 보석으로 만들어져 무척 비싸 로제가 주문하기 어려웠고 안 그래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안리에게 따로 이야기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로제의 나이 질풍노도의 15세. 아주 어리지도 않지만 욕망을 온전히 견디기에는 힘든 나이죠. 결국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이벤트 시작 직전 그것을 훔쳐내고 맙니다.

그렇게 장미 장식이 없어지자 안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야 안리 입장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면서 이벤트 물품을 준비 했던 데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본 로제에게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로제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려주려고 했으나... 하필이면 이벤트장에 ‘형사’가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로제는 경찰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모델 일을 어쩌면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카페도 망할 거고 안리도 실망할 것입니다. 로제는 결국 어떻게든 이 일을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로제는 나중에 안리와 단 둘이 되면 그때 죄를 고백하자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거라 여깁니다. 충동적으로 훔쳐낸 것이지만, 옷에 장식처럼 달아놓는 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로제는 몰랐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 중 우리 PC들이 있다는 것을요!

▶ 알고있었어 카드

알고있었어 카드 ①

유일하게 「 ① 」에 드나들었던 카페 매니저와 그의 피보호자인 모델 ‘로즈’가 용의자로 떠올랐다. 용의자들에게는 「 ② 」 보인다. 하지만 둘 중 범인이 있는 것은 틀림 없다. 그것을 증명하듯 보관 장소에서 『 ③ 』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알고있었어 카드 ②

‘로즈’는 「 ④ 」 했고, 보호자인 카페 매니저와의 사이가 소원해져 있었던 듯 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동기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곳은 이벤트 장이다. 현재 뜨고 있는 모델이 있다면 방문객들이 SNS에 인증샷을 많이 올렸을텐데.... 거기에 뭔가 증거가 될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 ⑤ 』이라던가.

▶ 키워드

[일반키워드]

- ① ‘장미’ 보관소
- ② 동기도 부족하고 숨길 곳도 없어
- ④ 장미장식을 갖고 싶어

[중요키워드]

- ③ 두사람 외
- ⑤ 이벤트 시작 전과 지금이랑 다른 점

▶ 페이지 안내

사건 발생 페이지

사건 발생 페이지에서는 아지트에서 카페 'Rose' 이벤트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어떤 이유든지 괜찮습니다. 휴대폰으로 SNS 이벤트에 당첨되어 초청받았다던가, PC들이 유명인이라면 카페 'Rose'측에서 직접 초청장을 보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아지트에 있던 카페 'Rose' 기념 이벤트 전단지지를 보고 방문 했을 수도 있겠죠. PC들의 상황에 맞추어 짜주세요! 여의치 않다면 PL분들과 상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게 이벤트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카페 정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미 울타리에 장미 도어벨... 장미 벽화에 종업원의 유니폼까지 장미 무늬입니다! 말 그대로 장미로 가득한, 컨셉이 무척 강한 카페네요.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장미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게 신기합니다. 카페 매장 앞에서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음료 시음을 할 수 있는 곳부터 방문객 모두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광경이나, 안쪽에서는 이 카페의 얼굴이자 광고탑인 청소년 모델 '로즈'의 사인회도 한창입니다. 로즈는 카페 테마에 어울리는 장미 장식이 달린 분홍색 의상을 입고 방문객 한명 한명 인사하며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방문자들의 대화도 들리네요. 여기서 추첨이벤트 상품인 장미장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로즈의 옷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지만 꼭 언급하고 지나가 주세요! 차후 기믹과 연결됩니다! — 자세한 것은 '범인'란을 확인하시면 용이합니다!)

“아! 그 예쁜 장미장식 주는 추첨이벤트 응모처가 어디더라.”

“저기 저 안쪽. 나도 그거 갖고 싶었어. 진짜 예쁘고 비싸보이더라.”

“진짜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 SNS에서도 화제였고 '로즈'도 예쁘다고 극찬했대.”

이런 식의 방문자들의 대화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장미 장식에 대한 정보를 PC에게 전달하고 나면 이벤트장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도 좋고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보조 판정을 통한 게임 같은걸 진행하면 재미있을지도 모릅니다! (ex: 시음회에 '외견' 판정으로 걸만 보고 어떤 음료인지 맞춰낸다거나... '유행' 판정으로 로즈의 사인을 멋지게 받아낸다거나...) 그렇게 이벤트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PC들의 귀에 날카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장미 장식이 없어졌다고요?!”

그 외침에 뒤를 돌아보면, 정장 차림의 사람 한명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카페 매니저인 안리입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안리의 외침처럼 이벤트 물품인 장미 장식이 없어진 것이죠. 그간 카페를 오픈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인지 안리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때 화를 내며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안리 옆으로 누군가가(*블레드 형사입니다) 다가옵니다. 단정한 복장의 사람인데....

“안녕하십니까. 경시청 소속 형사입니다만.. 재미있는 문제가 생기셨나 보군요?” 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안리가 이벤트 물품이 도난당한 사건을 이 형사에게 말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빠르게 방문객의 명단을 작성하고 종업원과 관계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선결’이겠다며 자기 친구에게 연락해 바로 수사 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형사의 수사 지원 요청 :**

동료이자 친구인 ‘에어리 스테인’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에어리’는 다음 시나리오인 ‘침묵의 총성’부터 출현하는 메인 NPC입니다. 이 연락은 블레드 형사와 에어리 형사의 연결 고리를 간단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형사와 에어리가 통화로 수사지원 요청하는 것을 보여주셔도 좋고 장면 없이 그냥 친구에게 연락해서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고 넘어가주셔도 좋습니다.

안리는 조금 떨떠름해 하면서도 당황한듯 반응합니다. 그야 오픈 이벤트를 하는 와중에 경찰이 왔다고 하면 카페에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테니까요!

그렇게 조사를 시작할 때 즈음 형사가 PC들을 발견합니다. (혹은 직접 형사가 이벤트장에 있던 사람의 명단을 작성한다고 하여 PC들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진행해주셔도 좋습니다.) 형사는 PC들에게 혹시 당신들은 ‘수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런데면, 탐정이라던가?” 하면서요. 어떤 대답을 하건 형사는 “재범 머리가 좋으신 분들 같은데 저 좀 도와주시면 어떨습니까?” 라고 하며 함께 수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PC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밝힌다면 형사는 어떤 태블릿을 들고 뭔가 리스트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태블릿을 집어 넣습니다.

****PC들이 정부 선정 탐정 리스트에 올라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착오 중이라 유능하다면 리스트에 바로 등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는 그런 임무도 맡고 있는 셈이죠. 특이할 점은 에필로그를 진행하실 분들, 침묵의 총성을 플레이할 예정의 분들은 형사의 이름을 에필로그까지 밝히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이미 침묵의 총성을 플레이 하신 분들이라면 에필로그에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형사의 부탁을 거절하면 사건은 바로 미제사건이 됩니다.

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형사는 수사 현장으로 PC들을 안내해주세요.

GM은 [알고 있었어 카드 ①]을 탐정PC에게 전달합니다. <수사 곤란 레벨>은 2입니다.

초동수사

현장에서는 한창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 형사(블레드입니다..) 대체 뭐죠! 웃으며 사람 속을 긁습니다. 하라는 브리핑은 안하고 PC들을 열받게 만듭니다.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네요!

아무래도 형사와 잘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어디까지나 NPC의 성격에 따른 진행이니 해당 NPC가 아닌 다른 캐릭터로 진행하셨다면 다른 이벤트로 대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잘 타이른다면 <사교>로, 주먹으로 타이른다면 <돌파>, 끈기있게 형사를 대한다면 <근성> 판정입니다.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 ① 」입니다.

판정에 성공하면 형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줍니다.

단, 초동수사판정에 실패한다면 다음 정보 1, 2, 3번은 전달하지 않고, 4번만 전달합니다! 나머지는 1번 키워드를 획득 했을 때 전달해주세요!

1. 장미는 따로 보관 장소가 있었고, 그곳을 '장미' 보관소라고 불렀다. 보관소라고는 해도 거의 사무실에 가까운 방이며, 그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건 로제와 안리 뿐이다.
2. 현재 카페에 고용된 종업원들은 이벤트장 여기저기서 이벤트를 진행했고 전원 알리바이가 있어서 카페 관계자 중 틈이 있었던 건 카페 매니저인 안리 플러미와 모델 '로즈'인 로제 플러미 뿐이다.
3. CCTV는 보관소 밖 문을 찍는 형태로만 존재하며 보관소 안을 찍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훔쳤는지는 알 수 없고 보관소 방문객이 누구인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4. 안리 플러미와 로제 플러미는 보호자와 피보호자 사이이다.

수사페이지

전반적인 수사는 알고있었어 카드 흐름에 맡기시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초동수사 때 정보를 전부 전달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1번키워드를 얻고 난 후 전달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마스터 장면의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돌이서 수사」 액션을 발동하기 직전 (보통은 2번 키워드를 얻고 나서겠죠!) 마스터 장면이 발생합니다. (한번만 발생시켜주시면 됩니다!)

□ 첫번째 돌이서수사 액션 발동하기 전 마스터 장면

PC들이 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던 형사(블레드)가 다가와 PC들에게 “지금 이 범죄가 만연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PC들이 어떻게 대답하건 형사는 PC들을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좋게 생각할지는 GM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형사가 내심 ‘PC들을 《탐정특별수사방침》에 참여시키자’고 생각하게 되는 것만 확정적이에요 만들어 주세요. 질문에 대한 블레드 본인의 생각은 되도록 숨겨주시면 좋습니다.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있어서는 안되지만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답해주세요.

깊고 진지한 롤플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범죄 혹은 수사에 대한 PC들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연출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시종일관 속을 굽기만 하고 사람 짜증나게 했던 NPC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니 다음과 같은 정보를 형사의 입을 빌어 롤플로 전달해 주시면 PC들이 다음 시나리오인 ‘침묵의 총성’을 플레이하는데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1. 현재 이 사회는 과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곧 이 근처에 지하철보다 많이 태울 수 있고 기차보다 빠른 이동수단도 완공된다고 한다. 그만큼 과학은 편리하고 중요한 기술이지만... 이걸 이용한 범죄가 무던히 많아지고 있다.
2. 지금은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지만 현재 범죄율은 경찰의 수사 인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범죄수사를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도 힘들다. 이것에 대해 어떤 방침을 새로 선포했다고 하던데... 이름이 《탐정특별수사방침》이라던가.
3.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검사나 형사, 탐정같이 범행을 수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늘어난 데다 경찰보다 유능한 경우가 허다하니 도움을 요청해보자는 느낌인 듯 하다. 곧 시행되는 모양이니 기다려보면 재미있는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형사는 직접 한번... 과학 수사를 해보는 게 어떨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PC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학돌수사가 아닌 평범한 일반돌수사(?)로 진행해주세요.

(※ 즉석 개변이 될 것 같습니다만... GM님들 다시한번 화이팅입니다...)

받아들인다면... 마스터 액션 **【과학수사대】**를 발동합니다.

다만 이 과학수사대 스킬은 **【특수시스템:과학수사】**의 일부를 차용한 것으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수사 도구 카드는 **6개가 아닌 2개**로 진행합니다. (지문 채취, 현장사진을 분석)
- 과학 시추에이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 페이지는 진행하므로 이에 대해서 **PL분들에게 반드시!** 설명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개요란에 있는 과학시스템 링크를 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제한된 효과를 받으며, 과학수사 도구 카드 **2개**를 **PC**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뒤 탐정 **PC**가 「**둘이서 과학수사**」 액션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둘이서 과학수사 장면 > 『 ③ 』를 조사할 경우

이 장면이 시작되면 블레드가 **PC**들에게 다른 사람이 안쪽에 들어갔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조사하는게 좋을까요?” 라고 블레드가 빙글빙글 웃으며 (알뜰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과학 도구를 내려놓네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타이밍에, 「과학수사 도구 제시 타이밍」이 발생합니다.

제시해야 하는 도구는 **【지문을 채취】**입니다. 만약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도구를 고른다면 여유를 1개 지불하고 도구를 다시 고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문을 채취

지문채취 분말인 **D분말**을 뿌려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한다.

형사가 내준 과학수사 도구중 지문 채취 도구를 이용하여 ‘장미’ 보관소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점성과 대상 물질에 따라 분말이 나뉘는 시대는 가고 최근엔 어디에든 통용되는 **D분말**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참 채취하고 지문의 주인을 확인하다보면... 이 보관소에는 용의자 두사람의 지문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중요키워드 『 ③ 두사람 외 』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서 : 보관소의 지문】**을 얻습니다.

【단서:보관소의 지문】

도난품인 ‘장미 장식’을 보관하는 보관소에서는 용의자인 카페 매니저와 로즈 두사람의 지문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은 듯 하다.

□ 키워드③를 조사한 후 마스터 장면

지문을 조사하고 있던 PC들에게 형사(블레드)가 다가옵니다. 형사는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을 전부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더 발견되지 않았으며, CCTV상으로도 두사람 이외에 들어간 흔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다른 정보를 하나 더 얻었는데 지금 그것을 로즈에게 확인하러 갈 예정이니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수락하면 조사받고 있는 로즈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서 함께 조사받고 있는 카페 매니저, 안리와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로즈는 지금 매우 두려운 듯한 롤플레이를 해주세요. 특히 형사를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형사가 험하게 군 것은 아니고 상황 자체가 무섭게 돌아가고 있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로즈의 입으로 PC들에게 말해주셔도 좋습니다.

“장미 장식을 갖고 싶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형사는 로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로즈는 당황하며 너무 예뻐서 그렇게 말한 적은 있다고 대답합니다. 쏘그라드는 목소리로 “장미를 좋아해서요...” 라고 말해주면 좀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매니저는 놀란 반응을 해주세요. “저거 갖고 싶어했었니?” 라고요. 마치 지금 처음 들어본다는 듯한 반응을 해주시고 그에 관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전혀 요만큼도 몰랐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호자께 말씀하시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텐데요” 라고 해설해설 웃으며 블레드가 말합니다.

마스터 장면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종료 되는대로 [알고있었어 카드②]를 탐정PC에게 전달해주세요.

■ 둘이서 과학수사 장면>『 ⑤ 』를 조사한 경우

이 장면이 시작되면 형사(블레드)는 갖고 있던 자신의 태블릿을 내어줍니다. “여기에 자료들을 꽤 많이 모아두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라면서요.

이 타이밍에, 「과학수사 도구 제시 타이밍」이 발생합니다.

제시해야 하는 도구는 [현장사진을 분석]입니다. 만약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도구를 고른다면 여유를 1개 지불하고 도구를 다시 고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 사진을 분석

현장을 다양한 각도로 세밀하게 찍어낸 사진은 언제나 세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PC들은 태블릿에 있는 각종 SNS에서 수집한 관련 사진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꽤 오래 사진들을 보다보면... 괜찮은 사진 몇개를 얻게 되고,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여 특이점이 있는 사진 두개를 찾게 됩니다.

이때 배포한 핸드아웃 중, [핸드아웃:로즈의 인세타그램 사진]과 [핸드아웃:사인회 인증샷]을 제시하시면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PC들이 알기 쉽게 제시하는 부분으로, 단서가 아님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사진] 로즈의 인세타그램

[두 번째 사진] 사인회 인증샷

[첫 번째 사진] 로즈의 인세타그램

로즈의 인세타그램 스샷입니다. “카페 ‘Rose’! 오픈 직전 찰칵!” 이라고 본문에 적혀 있고 로즈가 음료수를 들고 앉아 있는 단독샷이 찍혀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의상 걸옷이 걸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큰 리본이 인상적인 의상이네요.

[두 번째 사진] 사인회 인증샷

로즈의 사인회에 참여한 방문객들의 셀카입니다. 로즈와 만났다는 인증샷이었던 셈인지 뒤쪽에 사인을 하는 로즈가 보입니다. 인세타그램 스샷과는 다르게 걸옷을 전부 걸쳐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네요. 걸옷에는 인세타그램 스샷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장미모양 장식이 달려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꽤 예쁜장한 장식입니다. 올린 이 코멘트로 "로즈 옷에 장미 보석 달고있더라! 이벤트 홍보차원인가봐! 당첨되서 그렇게 옷에 매달면 예뻐 듯!"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사진 두개를 면밀히 분석하다보니... 사인회 전에 올라온 로즈의 인세타그램 스샷에 올라온 오늘의 의상에 달려있지 않던 큰 ‘장미장식’이 사인회 인증샷에는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PC들이 확인하고 나면 중요키워드『⑤ 이벤트 시작전과 지금이랑 다른 점』을 공개합니다. 동시에 [단서 : SNS사진]을 받습니다.

[단서 : SNS사진]

이벤트 시작 전 인세타그램에 올라온 로즈의 사진과 팬이 찍어올린 사인회 인증샷 사진. 둘 다 로즈가 찍혀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진상페이지

진상 페이지에서는 탐정PC의 추리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탐정PC가 원하는 추리무대를 준비해주시고 따로 생각해둔게 없을 때는 이벤트 장 뒤쪽으로 형사와 탐정 PC가 생각하는 범인을 부릅니다. *상당히 다양한 상황으로 진상페이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 안에서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며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테플에서는 괴도가 나타났습니다...헬)

<범인은 너다!>에서 범인을 [로제 플러미(로즈)]라고 지정하면 로즈는 죄책감 어린 얼굴을 하면서도 아니라고 도리질 칩니다.

결정적인 증거 페이지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단서는 [단서 : **SNS**사진]입니다.
이 페이지는 [마스터 액션:과학수사]가 발동되었을 때에만 생기는 페이지입니다.
탐정PC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되는 단서를 선택합니다.
(GMP가 탐정이라면 조수가 진행합니다.)
만약 탐정의 제시가 틀렸다면 조수의 여유를 1점 감소하고 재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 어렵다 생각될 경우 GM이 조수(GMP가 탐정일 경우 탐정)에게 힌트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내밀면 로즈는 결국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해도 좋고 아이같은 반응을 하셔도 좋습니다. 로즈의 반응은 GM님께 맡기겠습니다.
(매니저 안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안리는 로즈를 혼내면서도 서로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는 장면을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즈는 욕심이나서 훔쳤지만 사인회장에 온 사람들을 보니 이러면 안된다고 여겨서 시작할때 즈음 얼른 돌려놓으려고 했으나 안리가 생각보다 화를 많이 냈고 경찰이 현장에 있으면서 일이 너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수하면 일이 더 커질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하며,

“그래도 이렇게 잘못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사과드리고 벌을 받는게 훨씬 마음이 평온한걸요.”

하고 말합니다.

자리에 형사가 함께 한다면 반응은 원하시는대로 해주시고 생각이 안난다면 “이런 일을 키운건 바로 저였나 보군요.” 하며 빙글빙글 웃으며.. 전혀 찌리지 않는 듯 이야기해주세요!

종료페이지

◇ 사건이 해결 되었을 경우, 카페 매니저 안리는 신고를 취하합니다. 진상페이지에서 등장했다면 당연히 진상을 알게 되어서고, 등장하지 않았다면 로즈가 직접 안리에게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블레드)는 진상을 안다면 자신도 이럴 줄 몰랐다고 하며 로즈와 안리에게 사과를 합니다. 모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사건이 해결 되었나보죠?” 하고 해설 웃으면서 PC들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형사는 PC들에게 “덕분에 유용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또 사건 때문에 여러분을 뵈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전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Case.D46-204 장미 도난 사건, 범인 검거 완료>

◇ 사건이 미제로 남았을 경우 신고가 취하되지 않아 사건으로 남고, 범인인 로즈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리의 응원과 팬들의 이해(나이가 많이 어리니까요!)로 모델 일을 지속하게 됩니다. 당분간 악플에 시달릴 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 만약 사건 발생 페이지에서 미제로 남았을 경우 뉴스로 “청소년 모델 로즈,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가게 되고 로즈는 모델을 은퇴한다는 발표가 납니다.

*

다음 페이지의 에필로그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이하의 조건이라면 에필로그를 진행해주시면 더 즐거울 것입니다!

- 과학동수사 시리즈 ‘침묵의 총성’을 플레이 해본 적 있거나, 플레이 할 예정인 경우
- 본문에 등장하는 ‘형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
- 원지는 모르지만 있어보이고 싶은 경우(?)

*

에필로그

에필로그는 선택사항으로 진행해주세요!

다만 침묵의 총성을 플레이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벅, 저벅.

방금까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던 형사가 태블릿을 보며 걸읍니다. 화면을 향하는 그의 눈에는 ‘《탐정특별수사방침》탐정 리스트’라는 글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 그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 넣는군요.

‘탐정 PC’

‘조수 PC’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표정과 함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태블릿 화면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품에 태블릿을 집어 넣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거리는 무척 평온합니다. 방금 그 소란스러운 이벤트 장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풍경을 형사는 거리와 동화한듯 가만히 바라봅니다.

“블레드.”

누군가 형사의 이름을 부릅니다. 갈색머리의 녹빛 눈동자를 가지고 딱딱한 표정으로 형사를 멀찍이서 바라보는군요. 그러면 블레드는 웃으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에어리, 미안. 기껏 지원해줬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됐어. 사건이 더 안 커진 게 다행이지.”

굳은 그의 반응을 익숙한듯 대하여 다가가는 블레드의 걸음에 약간의 즐거움이 실립니다.

에어리라 불린 그는 그것을 눈치챈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을 잇습니다.

“...? 즐거워 보이네.”

“앞으로 세상이 재밌어질 것 같아서.”

블레드의 대답에 에어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지만 이내 앞장서서 경시청으로 향합니다. 그 걸음에 맞추어 함께 가는 블레드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근심이 없는 것처럼.
